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7월 16일(주일) 제1156호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배려는 믿음, 실천은 사랑입니다”

교회와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 누리의 축제
주민 배려, 지역경제 보탬, 환경까지 생각하는 캠페인

오늘(16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교회와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 누리의 축제다. 교회가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민을 배려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캠페인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양재 주차사역팀

정철윤 집사(서초D공동체)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에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아지면서 차량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김장일 씨는 “좋은 하루 보내라며 인사해주고, 시원한 생수 한 병 주는 교회 덕분에 힘이 난다”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 덕분에 예배 문화도 성숙해지고 있

다. 한 예배위원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 덕분에 매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자리를 뜨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구자엽 성도(교양은평공동체)는 “늘 주차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에는 교회 오는 발걸음부터 가볍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서빙고 주차사역팀 강영희 총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네는 운동도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오늘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개월 이하 자녀 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차량, 양재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는

성도들은 강남대로, 일동제약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두란노서점은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1.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온다.
2. 교회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다.
3.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따른다.
4. 택시를 이용할 성도는 교회 앞에 마련된 택시승강장을 이용한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러브소나타 동경 열흘 앞으로!

7월 25~26일 동경국제포럼에서 개막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7월 25~26일 동경국제포럼에서 막 오른다. 26번째로 막 오르는 이번 러브소나타는 1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라 더욱 뜻 깊다. 현재까지 190개 협력교회가 모였고, 초대장 신청이 무려 6,236장을 넘겼다. 한국인 봉사자도 1,798명이 참가한다.

러브소나타 동경은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포럼, 러브소나타 동경 집회로 진행된다. 25일에 열리는 교회 세미나는 동경국제포럼 D5홀과 아사쿠사바시교회에서 열린다. D5홀에서는 박종길 목사, 김하중 장로, 이기복 교수, 아사쿠사바시교회에서는 마루야마 강사, 오오카와 목사가 강의한다.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미래를 향하여’를 주제로 가스펠나이트가 열린다.

사토 아키라 목사(후쿠시마제일성서침례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26일 오전 11시에는 뉴오타니호텔에서 리더십포럼이, 오후 7시에는 동경국제포럼 A홀에서 대망의 러브소나타 동경 집회가 개최된다. 박진아 작가(샌드 애니메이션), 플루트 연주자 송술나무,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 배우 최지우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 정현주 기자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 추모예배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서빙고 본당
(유가족 중심) (성도 참여)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 추모예배를 8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 드리는 추모예배는 유가족 중심, 서빙고 본당에서 드리는 추모예배는 성도들이 참석한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 드리는

추모예배는 박종길 목사가 사회를 보고, 양재수 장로가 대표기도를 한다. 설교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가 한다. 서빙고 본당에서 드리는 추모예배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사회를 보고, 이철 장로가 대표기도, 권준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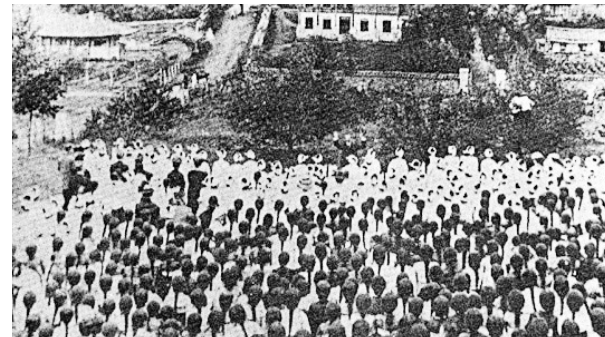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생전 설교 영상이 상영된다.

특집_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1. 18세기 1차대각성운동 2. 19세기 2차대각성운동 3. 무디부흥운동과 아주사대부흥운동 4. 한반도에서 벌어진 부흥운동



▶ 평양대부흥 당시 마포삼열과 평양여자사경회.
▲ 1907년 평양장로교회 앞에 모인 성도들.
▶ 1910년 평양장로회신학교 앞마당에서 개최된 전도집회에 모인 사람들.



복음으로!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돌이키면 살아난 역사적 증거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의 역사다. 미국은 18세기 1차대각성운동,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2차대각성운동,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아주사대부흥운동을 계기로 종교적·국가적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다. 한반도도 회개운동을 통해 국가적 변화와 위기에서 영적부흥을 경험했다. 역사신학자 조현진 교수가 돌이키면 살아난 역사적 사실을 한반도에서 벌어진 부흥운동을 사례로 풀어냈다. / 편집자 주



조현진 교수
(한국성서대학교
역사신학)

대부흥의 역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20세기 초 복음의 땅 끝이었던 한반도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운동으로 인해 복음의 땅 끝이던 한반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었다.

1884년 9월 알렌이 의료선교사로 들어오고, 1885년 부활주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을 통해 드디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놀랍게 일하셨다. 알렌 선교사가 입국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그해 12월 발생한 갑신정변에서 큰 상처를 입어 위중했던 보수파의 수장 민영익(명성황후 조카)을 치료하게 된다. 그 결과 알렌은 정부의 신임을 얻어 최초의 근대병원인 광혜원(지금의 세브란스)을 설립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곳을 선교센터로 삼아 알렌의 의료사역과 함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선교 활동이 열매를 맺으면서 한국은 빠르게 복음화 될 수 있었다.

복음의 확산과는 달리 당시 국가의 운명은 풍전등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제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실질적인 한반도 통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을사늑약을 1905년 체결했다. 민족적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적 반전을 이루셨다. 바로 영적부흥의 대역사를 기독교가 훨씬 오래전에 들어갔던 일본이 아닌 한반도에 허락하셨던 것이다.

기생과 환락의 도시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 일어났다. 그러나 그 시작은 1903년 원산부흥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 선교하던 화이트 선교사와 맥컬리 선교사는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이 기도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의료선교사인 하디가 기도회 강

사로 왔다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회개하게 된다. 그는 토론토의과대학 재학 중에 무디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시작된 학생자원운동을 통해 선교사로 헌신한 인물이었다. 하디는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아있던 학벌과 백인우월주의로 인해 한국인을 오히려 멸시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다. 그의 갑작스런 죄의 고백은 함께 기도하던 선교사들에게도 이어졌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임하였던 것이다. 자신들도 사역 중에 여러 문제들을 접하고 실망하여 한국인들을 미워하면서 “한국인들은 안 된다”며 인종차별적으로 대했음을 고백하는 회개가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하디가 원산교회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교만하고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고백했다. 그러자 교인들도 그들이 하디 선교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하디의 변화는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인들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때부터 원산에서 모이는 집회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공개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원산부흥운동이다. 하디는 연이은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국의 부흥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개성과 서울의 여러 교회에서 활발하게 집회를 인도하며 부흥운동을 확산시켰다.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시작되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로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열렸다. 첫 주장은 무미건조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사경회 마지막 14일과 15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당시 존경받는 장로이면서 신학생이던 김선주의 회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김선주는 죽어가는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달러를 착복했다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아간과 같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했다. 김선주의 회개와 선교사들의 말씀선교로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이어졌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하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고 나와 있다. 사회적 위신이나 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성도들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죄악들을 아파하며 토해냈다. 이를 목격한 노블 선교사는 “사도 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 주님의 권능이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는 마치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회심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졌다. 흠치거나 횡령한 돈과 물건을 되돌려주는 보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평양 시내 전역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고 한반도를 이끌어갈 다음세대의 주인공들을 훈련하는 숭실대학과 평양장로회신학교에도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변했다. 이제 평양은 ‘기생과 환락의 도시’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다.

역사가 증명하고, 그 역사를 살고 있다

우리는 평양대부흥운동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흥운동은 한국인들이 새로운 윤리의식을 가지도록 했다. 집회 중에 고백된 여러 죄목들을 보면 살인, 간음, 절도와 같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죄들도 있지만 흡연, 축첩, 제사, 주술, 도박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죄나 잘못으로 생각지도 않고 용인되었던 문제들을 죄로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교나 불교, 민간신앙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전통적인 생활습관들이 이제 성경에 기초해서 잘못된 것임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된 것이다. 평양대부흥운동과 복음의 확산으로 한국인들은 새로운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개인의 영적각성 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대부흥운동은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개혁했다. 여성의 지위향상, 신분타파, 교육열, 의식 개혁, 민족의식 강화 등을 성취했다. 특별히 평양대부흥운동으로 인한 민족의식 강화는 그 이후 독립운동과 연결되었다. 을사늑약(1905년)으로 인해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한일합방은 시간 문제였다. 이런 민족의 위기상황에서 대부흥운동을 통해 한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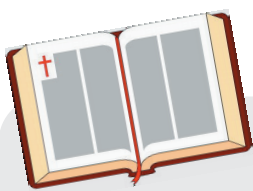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들은 성경적 가르침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민족적·정서적으로 하나 된 운명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해방 이후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한국 교회는 한민족 운명공동체로 ‘105인 사건’과 ‘3.1운동’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 인들은 전체인구의 1% 남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33인 민족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음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기독교가 서양인의 종교가 아니라 한민족의 종교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평양대부흥운동은 이후에도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1920년 김익두의 부흥운동, 1970년대의 복음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서 지속되었다. 이어 학원선교운동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해외 여러 선교지에서 지금도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일본 기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우치무라 간조는 평양대부흥운동 소식을 들으며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음과 같이 기대했다.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대단한 성령강림이 있다. 행복한 한국.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사랑하신다. 그들에게 군대와 군함은 주지 않으셨으나 그보다 능력이 강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한국은 실망할 것 없으며 옛 유대가 그 정치적 자유를 잃은 후 종교를 가지고 서양제국을 교화시킨 것처럼 한국도 역시 정치적 독립을 잃은 오늘 동양제국을 교화시킬 수 있다.”

우치무라는 한국이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 기독교국가와 민족이 될 것이며 주권을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후대에 세계선교의 중심으로 서게 될 것임을 예언했다. 이제 우리는 우치무라가 예언했던 모습을 넘어 독립된 대한민국에 살면서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사실은 이 나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복음으로!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 가는 일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신명기 30장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 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3-4절).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쫓겨난다, 사로잡힐 것이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쫓겨나고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로잡히고 쫓겨 가고 멸망당하는 실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입니다. 쫓겨 간 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와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와 절망과 죄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6절).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율법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추적하

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 ‘따른다’는 표현은 ‘추적하신다’, ‘쫓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시고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프란시스 톰슨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비유했습니다. 사냥개가 목표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가 임해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은 틀렸습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만이 아니라 은총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 편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회개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능력 또한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회개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회피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룰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네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11~14절).

우리가 순종의 명령을 회피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시대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 않았습다. 성경 공부가 많지도 않았습다. 그런데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지나치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위치나 큰 재물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적 체험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대한 매튜 헨리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아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요일 3:23). 우리가 마치 눈 먼 사람처럼 ‘주여 누구시오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묻는다면(요 9:36) 이 성경이 해답을 준다.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를 볼 필요도 없다. 그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또한 깊은 곳으로 내려가 거기서 그를 볼 필요도 없다. 그가 부활하셔서 거기서부터 올라오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속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의 성육신과 부활의 약속들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으로 그를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은 가까이 계시다. 매우 가까이 계신 것이다. 율법은 분명하고 쉬웠다. 그러나 복음은 더욱 더 그러한 것이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네 가까이 있으니 네 입 속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롬 10:8-9).

신명기 30장에서 요구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규칙을 지키는 차원의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순종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입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주셔야만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주시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 입술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악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은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에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값없이 순수하게 베풀어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합니다. 마음속에 교만과 악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퀴어축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한다

퀴어축제, 미국 게이바에서 일어난 폭동이 퇴폐의 온상으로 변질
동성애가 그릇된 성적 취향임을 가르치고 철저한 예방교육 해야

지난 14일과 15일 서울광장에서 '18회 퀴어문화축제' (이하 퀴어축제)가 개최됐다. 퀴어축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들의 문화행사이다.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찬반공방이 뜨겁다. 퀴어축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퀴어(Queer)’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하다. 형용사적으로는 ‘기묘한, 괴상한, 수상한, 메스꺼움’을 뜻하고, 명사적으로는 (남성)동성애자, 괴짜를 의미한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소수자’를 뜻하는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퀴어축제는 지난 2000년 9월 8일 연세대학교에서 이를 동안 개최된 것이 그 시작이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션스쿨인 연세대학교에서 퀴어축제가 시작됐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퀴어축제는 퀴어 퍼레이드, 퀴어 영화제, 퀴어 파티 등을 포함해 강연, 토론회, 전시회, 사진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에는 몇 십 명 정도가 눈치를 보며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수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퀴어축제는 1969년 6월 28일 미국에서 발생한 ‘스톤월 사건’에서 비롯됐다. 스톤월은 뉴욕에 있던 작은 게이바다. 지금 미국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긴 하지만 1960~70년대에는 성 소수자를 탄압하는 게 가능한 분위기였다. 1969년 6월 28일 저녁 경찰들이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다. 동성애자들의 시위는 무려 다섯 동안이나 지속됐다. 그날은 영화배우 주디 갈렌



▲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은 게이였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지난해 퀴어축제 거리 퍼레이드.

드(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연)의 장례식 날이기도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게이였는데 그로 인해 주디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호의를 표명했고, 그 일로 많은 게이 커뮤니티에서 주디 갈랜드를 오랫동안 추앙했다.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도 그녀가 영화 속에서 부른 'Over the Rainbow'에서 유래됐을 정도다.

1970년 6월 28일 스톤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게이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미국 최초의 게이 퍼레이드였고, 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퀴어축제가 각 나라로 우후죽순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퀴어축제도 이 스톤월 사건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스톤월 사건이 일어난 지 약 50년이 흘렀다. 이제 해마다 6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동성애자의 자긍심'이라는 뜻의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하고 있다.

초창기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는 지금과 달리 암전했다.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을 정도였다. 그랬던 것이 1990년대부터 노출증, 가학피학성애, 성전환증, 이성애상선조자 등의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의 행사로 변모되기 시작했다. 알몸 행사, 동성 간 성행위를 연출하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적 취향을 정상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

면서 성적 소수자를 배려해 달라고 말한다. 문화 행사라는 명목 하에 음란한 성욕 선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퀴어축제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퀴어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올해 퀴어축제에는 인권위원회가 참가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등 외국 공관이 퀴어축제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한국 국가기관이 부스 운영에 참가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구글코리아, 러쉬(LUSH) 등 총 110개 단체 및 기업과 주한 캐나다대사관 등 13개 외국 공관도 참여했다. 서강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션스쿨(각 대학교 성 소수자 모임)에서도 참여했다. 퀴어축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다.

교계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성애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시류가 되었다. 한국 교회도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성애자들의 공격과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와 퀴어축제 반대를 외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해 낯은 보

수, 꼴통, 개독교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때 교계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동성애가 그릇된 성적 취향임을 가르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적으로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분명 동성애는 왜곡된 성적 취향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이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고 가정의 근본원리이다. 이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주어진 창조원리다. 성경은 명백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레 20:13, 롬 1:26-27). 그렇다고 그들을 무턱대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보호받아야 할 한 인간이다. 예수님의 행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간음 중에 붙잡혀 온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며 그 불륜의 여인을 보호하셨다. 그렇다고 그녀를 용인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8:11)고 명하셨다.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죄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LGBT: Lesbian(레즈비언, 여성동성애자), Gay(게이, 남성동성애자), Bisexual(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ransgender(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약자.

성적 지향: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을 뜻한다. 비슷한 말로 ‘성적 선호’란 말이 있는데 이는 그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결과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선호보다는 지향이란 단어를 쓴다. 동성애는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반: 한자로 二般, 異般으로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성애자들을 ‘일반(一般)’으로 일컫는 것과 구별해서 이반(二般)이라고 한다. 동성애 관련 사이트나 모임, 클럽들이 ‘이반-’이 들어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커밍아웃: ‘벽장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는 구절에서 유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웃팅: 동성애자임을 숨겨왔던 유명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 혹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려지는 일을 뜻한다.

부치(butch): 레즈비언 커플 중 남성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을 지칭하는 말. 반대말은 팸(soft)이다. 주로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으며, 바지만을 입는 등 남성적인 사람들을 부치 스타일이라고 한다.

보갈: 갈보를 뒤집은 말로 게이 은어이자 비하어이다. 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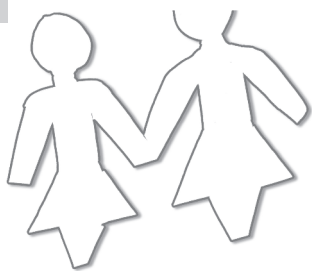
는 창녀를 뜻하는 말이고, 보갈은 1970~80년대 한국 게이들이 스스로를 비하해서 부른 것이라고 한다.

레인보우: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동성애자의 상징.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에서 남색을 뺀 6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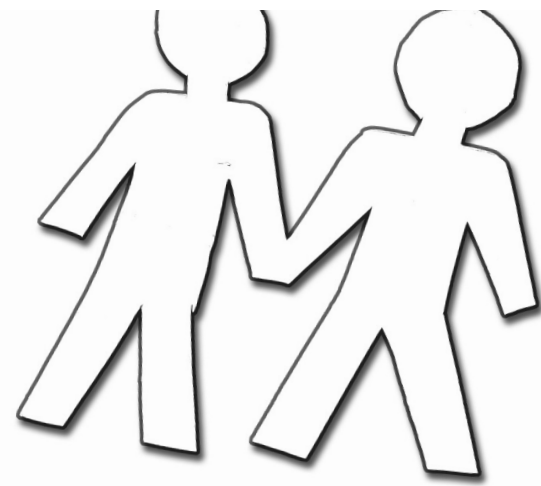
드랙 퀸(drag queen), 드랙 킹(drag king): 여성 복장을 한 남성. 남성이 여장을 했을 때는 드랙 퀸, 여성이 남장을 했을 때는 드랙 킹이라고 하며 이들의 쇼를 드랙 쇼(drag show)라고 한다.

게이 게임즈(Gay Games):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성 정체성,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운동능력, HIV 감염 여부, 종교, 정치적 신념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운동경기. 4년에 한 번씩 세계 도시를 돌며 개최. 관련 문화행사들도 함께 펼쳐진다.

전문가 기고



퀴어축제는 축제가 아니다



김지연 약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을 읽으며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보다 더 살뜰히 우리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챙기고 중보하고 계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 ‘건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선언하고 있다.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2004년 흡연자 허모 씨가 “금연구역을 제한해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는 모두 헌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와 제10조(행복추구권)에 따른 것인데,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제35조)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상위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상적 성행위가 수명을 갉아 먹는다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등 건강을 촉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꽤 많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다. 어쨌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부부 간 성관계는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동성 간 성관계는 당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15년 5월 미국게이·레즈비언의학협회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표를 했다.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우울증 및 불안, 간염, 성병, 전립선암 및 대장암 등 여러 정신적·육체

적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크다고 밝힌 것이다. 2007년 3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동성애자들의 수명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결혼한 게이들의 평균수명을 분석한 인폴 카메론 박사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동성 간 성행위가 평균수명을 24년 정도 짧게 한다.”

전통적인 결혼 즉, 이성끼리 결혼한 사람들보다 동성 간 결혼한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24년 짧게 사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카메론 박사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나타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는 동성커플의 법적 등록이 가능한 나라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역사로 따진다면 가장 긴 나라다. 덴마크에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전통적인 결혼을 한 남성의 평균수명은 74세였다. 반면 동성관계를 가진 561명의 게이들의 평균수명은 51세였다. 평균수명에서 자그마치 23년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전통적인

결혼을 한 남성의 평균수명이 77세였는데 반해 31명의 게이들의 평균수명은 52세였다.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며 카메론 박사는 흡연 행위보다 동성애적 행위가 더 위험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교육에 반드시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가 발행하는 격월간지<국제역학저널>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캐나다 대도시 중심부에서 나타난 보건자료 중 의미 있는 수치를 뽑아내 통계자료를 만들었다. 이 저널에서 20대 동성애자 남성과 양성애자 남성의 기대수명은 전체 남성에 비해 8~20세가 짧았다. 20세의 게이와 양성애자의 거의 절반이 65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원인으로 높은 에이즈 감염률 등 일반인보다 열악한 건강상태를 꼽았다. 중년 남성이 꾸준한 흡연을 할 경우 평균수명이 10년가량 단축된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흡연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간단한 수치 비교로도 금세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성애적 행위가 인류의 수명을 줄인다는 보도나 발표는 의외로 많다. 위험 행동, 즉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상식적으로 위험한 습관이나 행동은 인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비정상적인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도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 컷구멍으로 커피 국물을 마시는 행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비동염, 안구염, 중이염 등 각종 질병에 걸려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다량 복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장시간 한다면 약물 부작용과 지속적인 염증으로 본인의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비정상적인 생활 습관으로도 생명이 단축되는데 하물며 비정상적인 성행위 습관을 가진 사람은 오죽할까. 배설기관을 성생활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상행동은 상대 파트너가 누가 되었던 간에 가학적이라 할 수 있다.

‘동성연애자’, ‘동성성애자’가 적절한 표현

동성애(同性愛)는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다.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sexual attraction), 동성과의 성관계(sexual

behavior),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sexual orientation) 등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동성애라고 하면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동성 간 사랑 혹은 동성 간에 막연한 끌림을 많이 떠올린다. 하지만 호모섹슈얼리티란 말은 동성 간 성행위나 성애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호모섹슈얼리티를 한국말로 동성애라고 칭하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동성 간 성행위를 미화하기 위한 언어 프레임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헤테로섹슈얼리티(heterosexuality)’라고 부르는 이성애라는 단어 역시 이성 간 성행위 혹은 이성 간 성애를 전제로 한 단어다. 엄밀히 말해 이성애를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도식화시킬 수가 없다.

어머니(여성)가 아들(남성)을 아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모자 간 사랑을 예로 들어보자. 어머니는 여자이고 아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이성애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목회자가 장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해 우정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성애 즉 섹슈얼리티를 전제로 하지 않기에는 이것은 모두 동성애가 아니다. 그러나 언어 프레임 상 동성 간 사랑은 모두 ‘동성 간 섹슈얼리티’라

고 부르게끔 한국말로 오역돼 있다. 지금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동성연애’ 혹은 ‘동성성애’라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용어를 바꾸는 것이다. 동성애는 동성성애이며 따라서 동성애자의 바른 표기는 ‘동성연애자’ 혹은 ‘동성성애자’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미국 여성건강국 웹사이트에는 레즈비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여성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여성’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과거에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도 현재 여성을 상대로만 성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레즈비언이다’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이다. 레즈비언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타고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철저히 현재의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여러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동성 간 성행위가 건강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동성애 성향은 바꿀 수가 없는 유전에 의한 것인 것처럼 주장하며 퀴어축제를 열어 동성애를 하나의 인권인 듯 자기성적 결정권인 듯 말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짓과 음란이 난무하는 축제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라 어떤 그릇된 목적을 둔 시위로 봐야 한다.

동성 간 성행위는 인간에게 해롭다. 퀴어문화축제라 이름 하는 동성애 옹호 및 전파를 위한 일체의 시위들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및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더 이상 이 땅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성과 상징성 있는 서울시의 심장 시청 앞 광장에서 행해져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옥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싶다면 동성애자들도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오래 행복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동성애를 끊으라고 사랑의 마음을 다해 말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고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우리가 입을 열어 알려줘야 한다. 그 과정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이겠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이 그다지 길지 않음을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진리를 위해 실컷 핍박받아도 100년 이상 못 받는다. 곧 주님 앞에 선다.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않고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돌들이 입을 벌리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없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눅 19:40).

여의도공동체의 '다락방1사역' 베이비박스 봉사를 다녀와서

베이비박스가 '갈대상자' 일 수도 있다

최근 영아유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쓰레기 더미와 모텔 화장실 천장에서 신생아가 발견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신생아 시신 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영아유기 범죄는 201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했다. 2010년 69건에서 2013년 225건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부터 줄어들다가 지난해 109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이렇게 신생아들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베이비박스'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들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가 2010년 4명, 2012년 67명, 2015년 2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베이비박스 덕분에 목숨을 건진 아기가 949명이나 된다. 한 달 평균 15명을 살린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서울 난곡로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가 처음 베이비박스를 운영했다. 온누리교회 여의도공동체가 올해부터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를 다락방 1사역지로 선정하고 섬기고 있다. 임장순 집사(여의도공동체)가 베이비박스 사역의 의미와 간증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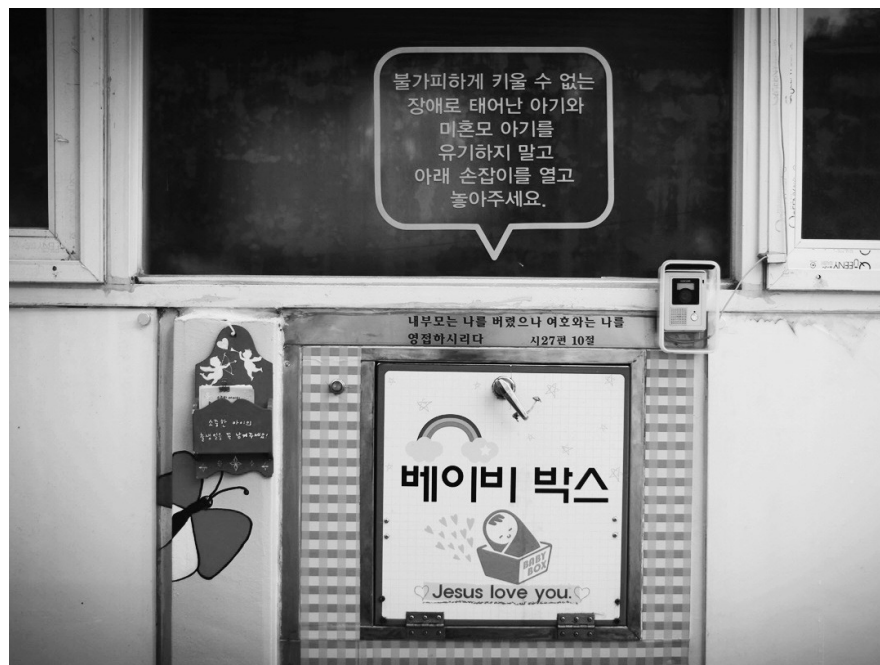
임장순 집사
(여의도공동체)

‘베이비박스’, 한 번쯤 언론보도를 통해 들어보았을지 한 이름이다. 2017년 여름이 오기 전까지 내가 이곳과 인연을 맺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난 6월 24일 맑은 토요일 아침 나는 예상치 못한 베이비박스와 첫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여의도공동체 사역으로 베이비박스 봉사가 선정된 것이었다.

관악구 난곡에 소재한 베이비박스는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담임목사님이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 앞에 아들을 두고 간 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나서 자칫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설운영을 결심하셨다. 베이비박스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기되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구하고자 아기를 익명으로 두고 갈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설치한 신생아 보호장치이다. 많은 미혼모, 미성년자들이 아기를 놓고 가는데 심지어는 10대 여학생이 화장실 분만을 하고 땀줄도 정리하지 못한 채 베이비박스를 찾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2년 79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지금은 매년 250명~300명 정도의 아기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아신고를 통해 정부기관으로 보내지거나 입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으면 벨소리가 난다. CCTV를 통해 확인한 즉시 부모를 찾아가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설득하고, 평생 생이별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보호장치가 완전히 구축되어 버려지는 아기들이 없게 될 때까지 최후의 긴급 구제처로서 베이비박스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종국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소망은 사업의 확장이 아니고 유기되는 영유아가 사라지고 베이비박스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

여의도공동체에서는 매달 1회씩 다락방별로 베이비박스를 방문하여 청소봉사를 하고 소정의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만남이 있던 날,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소식에 버스를 타고 도착해보니 제법 높은 언덕배기에 시설이 위치해 있었다. 오랜만에 가벼운 등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드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기와 생이별을 하려고 이 언덕을 많은 사람이 땀 흘려 오르며



“모세를 키웠던 유모의 사랑과 손길처럼
우리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보다 값진 동참이 또 있을까.”

몸과 마음 모두가 힘에 겨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시설운영자의 간단한 소개를 듣고 나서 여성은 실내청소, 남성은 옥상폐기물 정리, 건물의 벽청소를 시작하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성껏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고, 버려진 쇠붙이와 나무기둥들을 치우며 손에 가시가 박히는 줄도 모르고 정리하다보니 어느덧 이마에 구슬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시설 안에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보내온 다양한 유아용품(분유, 기저귀, 놀이기구 등)들이 적치되어 있었는데 그 물품들을 정리하는 일도 우리 다락방식구들의 몫이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동안 ‘내가 원래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애교 섞인 질문이 떠올라 미소 짓게 되었다. 수없이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보내온 지원물품들을 보며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안도의 생각이 들었다.

청소하던 중 베이비박스 위에 적혀있는 문구가 눈에 걸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

기와 미혼모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Doing’ 과 ‘Being’

‘Doing’ 과 ‘Being’이라는 개념이 있다. Doing은 행위와 성과를, Being은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존재 자체의 소중함보다 그 존재가 이루어내는 성과를 더 중시하고 성과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좌절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은 장애아여서 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버리고,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버리는 현실이 실로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저버린 성과중심의 이기심이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청소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성과와 무관하게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버려진 한 생명도 소홀함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역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라고 생각되어 감격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 가지 생각이 심각하게 내게 다가왔다. 버려진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태어나보니 버려져 있었고, 이미 부모는 없어진 뒤였고,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은 더욱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그저 태어났을 때 주어진 상황이었을 뿐 내 스스로 잘한 일이 있어서 주어진 상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버려진 아기와 나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이 귀가길 내내 마음을 붙잡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열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고 교만한 내 자신을 타일해보았다.

그날 밤 노곤한 피곤함마저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평안하게 누운 내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베이비박스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기상자쯤 되겠다고 느끼기도 잠깐, 이 아기상자가 곧 갈대상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자 속에 담겨 나일강가에 버려졌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비록 부모는 미숙하여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면 버림받은 아이들이 이 시대의 모세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모세를 키웠던 유모의 사랑과 손길이 떠오르면서 우리 자신이 베이비박스 속 이 시대의 모세를 키워내는 유모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값진 동참이 아닐 수 없을진대 동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막9:37).

돌아보건데 바쁜 내가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러 간다고, 나눠주러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내가 오히려 치유 받으러 간 시간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잔치에 초대받아서 간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베이비박스 잔치에 우리 모두를 VIP로 초청하고 계신다. 부디 잔치에서 모두 뵌 수 있기를 소망한다.

문의: 010-2375-3786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아름답다

사랑챔버의 진부령 미술관과 12사단 감동여행기



사랑챔버가 진부령 미술관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미술관에 전시된 조각과 어우러져 천상의 조화를 이루었다.

사랑챔버가 지난 7일 또 한 번의 감동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에는 진부령 미술관과 12사단을 찾았다.

사랑챔버는 이번 여행지에서 만난 이들 에게도 “세상에 완벽한 나무와 꽃이 없는 것처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선물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동과 눈물 그리고 희망을 선물한 사랑챔버의 감동여행기(旅行記)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진부령 미술관에 전시된 조각과 찬양이 어우러지니 정말 좋았다. 천상의 조화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사랑챔버 단원들도 그랬다. 연주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각각이었다. 그런데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달라졌다. 누구보다 진지했다. 악기와 사랑챔버 단원들이 세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다. 지휘자의 손끝에 집중하는 사랑챔버 단원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흥겨운 동요를 연주할 때는 단원들이 미소천사로 변신했다. 사랑챔버가 연주하는 곡들이 어찌나 신이 나고 흥겹던지 전시된 조각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일 것만 같았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번에는 사랑챔버 어머니들의 수화공연이 이어졌다. 연주는 사랑챔버가 맡았다. 그동안 장애인 자녀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과 싸워야했던 고통과 고독, 외로움과 상처를 음악으로 승화시킨 어머니들의 수화공연에는 눈물이 배어 있었다. 그 어머니들의 공연을 보고 있자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동이 올라왔다. 불로 태우는 것처럼 뜨거운 감동이었다. 사랑챔버와 어머니들의 공연은 분명 희망을 연주하고 있었다. 어느 것 하나 감동적이지 않은 연주가 없었다. 이날 진부령 미술관을 방문

한 관객 120여 명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아니 차고 넘쳤다. 관객들은 사랑챔버가 선보인 아름다운 선율에 한 번 감동 받고, 장애를 딛고 일어난 용기 있는 모습에 두 번 감동했다.

특별한 전시와 특별한 공연

사랑챔버가 진부령 미술관을 찾은 이유는 탁연하 조각가(86, 양재 온누리교회)의 개인전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탁연하 조각가는 진부령 미술관에 작품 170점을 전시했다. 진부령 미술관 전석진 관장은 “한 사람이 작품을 170점 이상 전시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 특별한 전시회에 사랑챔버가 초대된 것이다. 아주 특별한 전시와 아주 특별한 공연이 또 하나의 조화를 이뤘다.

탁연하 조각가는 사랑챔버의 연주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연주가 끝나자 그의 입가에 아버지 미소가 번졌다.

“저의 조각전에서 사랑챔버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합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임규완 향로봉 연대장은 “사랑챔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쳐 왔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했고, 정성옥 목사(선돌교회)는 “그 어떤 훌륭한 오케스트라도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위안을 선물 받았다”고 고백했다. 김경두 성도(타 교회)는 “장애를 넘어서 멋진 연주를 선보이는 사랑챔버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며 목이 메었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감동의 물결은 12사단에서도 이어졌다. 박혜신 단원의 어머니 김명희 권사가 먼저 무대에 올라 장병들에게 인사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건강한 여러분이 그저 부러워요. 저희들에게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이 이룰 수 없는 소원이거든요”

힘들게만 느껴지는 군생활이 누군가에게는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처음 안 장병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사랑챔버의 연주가 이어졌다. 사랑챔버 박민수 형제가 직접 피아노를 치며 ‘소원’이라는 찬양을 불렀다. 군생활로 지쳐있던 장병들에게 이보다 큰 위로는 없었다. 신선한 충격에 이어 감동적인 사랑챔버의 노래 선물이 장병들의 굳은 마음을 녹였다.

박민수 형제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자폐증이 있다. 그의 어머니 송순행 성도가 박민수 형제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다. 박민수 형제가 독창할 때도 어머니 송순행 성도가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다. 송순행 성도는 박민수 형제가 어디에 가든지 ‘소원’을 꼭 부른다고 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늘 민수에게 ‘너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들’이라 말해주요. 민수도 그 말을 이해하는지 같은 곡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데 ‘소원’은 지겨워하지 않더라고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올려 드리는 것이 삶의 이유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박민수 형제는 음악성을 타고났지만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토라지기 일쑤였다. 연습을 하다가도 무산될 때가 많았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박민수 형제만의 ‘소원’이 탄생했다. 그렇게 완성된 곡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로잡았다. 12사단 장병들도 완전히 매료되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송순행 성도가 화장실 앞에 서 있는데 두 병사가 다가와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박민수 형제의 공연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공연장에서도 간증이 이어졌다. 임동주 병사는 “사랑챔버의 공연을 보면서 나도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 박경빈 병사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화평 병사는 “완벽하지 않기에 더욱 아름다운 공연이었다”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했다. 성일 12사단장도

사랑챔버 공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

“사랑챔버 단원들이 지휘자 손짓에 맞춰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연주 속에서 단원들과 지휘자, 부모님들의 노력과 수고가 보여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장병들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 도전을 주고, 위로와 희망을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연주하다

사랑챔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연습의 결실이다. 사랑챔버는 1999년 ‘온누리 장애인 음악교실’로 시작됐다.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악기연주는 고사하고 1년 동안 자리에 앉는 것만 연습했다.

사랑챔버 단원들의 악기를 자세히 보면 그들의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악기에 붙어있는 알록달록한 스티커가 그 증거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음을 짚을 수 있도록 붙인 것이다.

사랑챔버에는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다운증후군 등 여러 유형의 발달장애인 6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자폐성 장애는 발달장애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그런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랑챔버 단원들은 무대에 서면 지휘자를 응시한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춰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최근에 집사(연제민 단원의 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연주하는 사랑챔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제민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단원들의 어깨를 잡아주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문의: 최금애 총무 010-8725-6106

강남B공동체 강원도 정선



서지연 성도
(강남B공동체 소망3순)

“바쁘다”는 말이 지난 수년 동안 나를 지칭하는 수식 어였다. 매일 반복되는 직장에서의 살인적인 스케줄, 엄마와 아내,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감당하며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가끔 내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를 위한 시간은커녕 그 많은 미션들을 수행하기에 24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다. 그렇기에 교회에서의 봉사활동과 아웃리치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내가 1박2일 동안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 그것도 한 번도 교회에 가 본 적 없는 남편과 함께 말이다.

무엇이 우리 부부를 그곳에 가게 한 것일까. 우리 부부가 함께 무엇인가를 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았는데 기억이 아련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결여된 공허를 바쁘다는 핑계로 덮고 지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절대 나를 채워주지 못했고 늘 궁핍했다.

지난해 교회에 등록한 이후 다락방 순모임을 권유받았다. 이것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를 배회하는

나를 그냥 두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 같다. 남편과 함께 순모임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강렬하게 일기 시작했다. 남편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다. 내가 어떻게 힘써서 될 일이 아니었다. 나의 소망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졌다. 남편과 아웃리치에 동행하게 되었다.

이번 강원도 정선 풍운교회 아웃리치는 소망다락방 주관으로 이뤄졌다. 아웃리치라는 단어도 낯설었고,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들도 처음 뵈는 분이 많아 낯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남편의 아웃리치를 준비해 주셨다. 소망다락방 순장님들이 봄부터 우리 부부가 여름 아웃리치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가슴으로 우리 부부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은 이제 막 새신자과정을 시작한 초신자였다. 새신자교육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아웃리치에 가게 된 것이다. 남편은 교회까지는 나의 말에 처음에는 질색했다. 다행히 소망3순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잘 대해줘서 남편의 마음이 열릴 수 있었다. 함께 아웃리치도 갈 수 있었다. 우리는 정선 풍운교회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손 마사지를 해드렸다. 동네 어르신들의 손을 정성을 다해 주물렀다.

그렇게 마사지를 했더니 여색함도 잠시였다. 어르신들과 간단하지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일요일에 시간 있으면 교회에 잠

우리 부부의 첫 아웃리치



마을 어르신들께 정성스럽게 손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다.

시 나와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셨다. 어르신들 손 마사지를 하면서 “어르신,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이 말은 나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함께 순모임을 하고 싶다는 소망과 바쁨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워주셨다.

우리 부부에게는 이번 아웃리치가 처음이었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소망다락방 지체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소망다락방 지체들을 만나니 기쁨이 배가 되었다. 남편과 내가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주신 소망3순 가족들께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웃리치에 참여하도록 두 팔 벌려 우리 부부를 안아주고 인도해주신 축복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서빙고 일대일사역팀 러시아



이기영 집사
(서빙고일대일사역팀, 성북공동체)

서빙고 일대일 사역팀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아웃리치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서빙고 일대일 사역팀장)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여자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통역을 두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과 연이어 해외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앞서 신청하지 못했다. OBC 이사야 공부를 하던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사 41:10)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찢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셨고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용어와 개념이 동반자에게 잘 전달될까 하는 염려였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오르게 하셨다. 1994년 일본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을 때였다. 일본인 아주머니와 대만인 유학생을 일대일 제자양육 했는데 당시 내가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며 러시아 아웃리치에 임했다.

밤 10시 40분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새벽 2시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렸다. 다시 연해주신학교에 도착한 것이 새벽 3시쯤

이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오전에 두 과, 오후에 두 과, 저녁에 한 과를 진행했다. 나의 동반자는 러시아인 전도사였다. 통역은 고려인 목사님이 해주셨다. 고려인 목사님은 일대일 제자양육 경험이 있는 분이셨다. 나눔과 말씀의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말씀히 해결해 주셨다. 우리 세 명(동반자, 통역자, 나)은 비록 진정한 의미의 일대일 제자양육은 아니었지만 말씀 가운데 서로의 어려운 일들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며, 즐거운 일에는 함께 웃기도 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했다.

요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알코올중독자, 굶는 사람들, 무너진 가정이 많다. 어린이들도 술을 마신다고 한다. 통역을 도와준 고려인 목사님은 시골 교회를 개척해 집시들,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배고픈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집시들은 일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목사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마당 쓸기나 잔디 깎기 같은 간단한 일을 시키면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했다. 그러면 그들은 다음에 또 배가 고프면 일거리를 찾아 교회로 온다고 한다. 목사님은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공부를 한다고 했다. 내 동반자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다. 치매조기 진단을 받아 머리가 아프고 심장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럼에도 동반자는 나와 일대일 제자양육에 성실하게 임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이기영 집사가 동반자와 통역자와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동안 머리로 심장도 하나도 안 아팠다고 고백했다. 그날의 과정을 마치고 저녁에 누우면 너무 행복해서 다음날이 기다려졌다고 말하며 나를 꼭 껴안아줬다. 내 볼에 뽀뽀까지 해주었다.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순간이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치며 동반자와 통역 목사님은 제자를 재생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는 귀중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러시아 아웃리치를 위해 참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

신 선교사님, 그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현직인 목사님과 신학생들, 러시아 시골교회를 돌아보며 비전을 심어주는 또 다른 목사님, 침을 놓으며 복음을 전하는 한의사 선교사님 등이 도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어 러시아 온 땅과 북한, 러시아 주변의 ‘스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들과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한다.

서초D공동체 일본 나고야



김규리 성도
(서초D공동체)

나고야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나고야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눈물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이웃이자 양육인 나라 일본이 과거 한국에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들과 아직까지 사죄하지 않고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며 나는 늘 일본을 가해자로 생각했다. 일본은 반드시 피해를 입은 나라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아웃리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회개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 나고야 아웃리치를 앞두고 친정 어머니와 다녀온 20일 동안의 전도여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고했다. 하나님은 여행 마지막 날 어머니의 수줍은 영접기도를 허락하셨고, 나의 오래된 기도를 들어 주셨다. 전도여행을 다녀오느라 아웃리치 준비가 미흡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일본 나고야로 향했다.

도착 이튿날, 나고야 고마키교회의 장철원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일본은 분명 우리에게 사죄하고 용서 받아

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일본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나는 마음속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한번도 그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았다.

이번 아웃리치 팀원 26명 모두 뻘뻘한 일정과 쪼뚫 같은 더위 속에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맡은 사명을 감당했다. 나고야 공항에서 우리를 반겨주신 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미요코 할머니였다.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들과 함께 나고야 땅밋기를 해 주셨다. 우리가 할머니를 돌봐 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았다. 아웃리치 이튿날 미요코 할머니가 갑자기 다리를 못 움직이셔서 누워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다. 주일예배에도 나오기 힘들 거라고 했다. 일본, 이 사마리아 같은 영적 황무지에서 할머니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주 드문데 아웃리치 팀원들을 섬기려다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 하신다니 마음이 아팠다.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다. 미요코 할머니가 걸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눈물



서초D공동체가 일본 나고야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게 달란트시장을 진행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는 순간 저 멀리 낮익은 얼굴이 보였다. 미요코 할머니였다. 나는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마음속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이किन 목사님의 설교로 주일예배가 한층 더 뜨거워졌다.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 아웃리치 팀원들이 찬양 ‘God Bless You’를 불렀다. 첫 소절부터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찬양

을 불렀다. 그 감동이 고스란히 일본인 성도들에게 전달됐다. 그들도 함께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 어린이 율동, 달란트 시장, 중고등부 예배도 뜨거운 호응 속에서 즐겁게 마무리 됐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번 나고야 아웃리치를 통해 일본에 살고 있는 가없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서빙고 초등1부 중동 A국



이재오 교사
(서빙고 초등1부)

“초등1부에서 중동 A국 선교사님 자녀들과 중동 B국 현지교회의 영유아와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이 말에 아웃리치 경험이 없는 내가 겁도 없이 바로 지원했다. 9박10일, 짧지 않은 기간이었기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3명의 인원이 꾸려졌고, ‘기드온의 300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

중동 A국에 입국한 우리는 영화 ‘스파이’ 같은 장면을 연출해야 했다. 긴장감 속에 늦은 밤 한 선교사님 댁에 도착했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자 각 가정의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알게 되었다. 솔직히 아웃리치를 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동 A국 MK(Mission Kids, 선교사 자녀)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들을 따라온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친구들도 없이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고 기도도 많이 했다. 그러나 선교사 자녀들을 만난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내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배려해주고, 아낌

없이 나눠주고, 감사해했다. 그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 세 살부터 열일곱 살까지 20여 명의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뜨렸다. 어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모습이 이 아이들과 같을 거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그 아이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 그 자체였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고 키우면 이 아이들이 처럼 될까?”

교사이면서 한 아이의 아빠인 나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셨다. 한 가지는 여덟 살 여자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여덟 살 여자 아이가 동생들에게 너무나도 잘 해주는 것이었다. 한 선생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뒤통수를 세계 얻어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제가 언니오빠들에게 받은 것들을 그대로 동생들에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저녁집회 때 알 수 있었다. 찬양과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중간에 기도가 잠시 멈췄을 때였다. 닫힌 문 밖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자녀들이 안에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은 문 밖에서 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다.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러

사랑 전하는 교사, 기도하는 부모



중동A국 선교사 자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짝 웃고 있다.

웠다.

나는 내 딸이 수많은 캠프에 갔지만 한 번이라도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았다.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면서도 크게 관심 없어 하는 부모님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나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다. 눈물과 함께 회개가 터져 나왔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선배들과 문 밖에서 눈물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멋진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먼 땅까지 와서 만난 이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닌 평범한 아이들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9박10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만난 것은 우리 아웃리치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귀한 경험이었다.

이제 돌아온 우리에게 숙제가 남겨졌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가 바로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다. 첫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들을 위해 문 밖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 올 여름 꼭 봐야할 영화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진짜다, 여기 증거가 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저명한 신문의 법률담당 기자 리스트로 벨은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1년 9개월 동안 조사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기독교의 진실로 강력하게 끌고 가는 엄청난 양의 증거들

을 근거로 보니 크리스천이 되는 것보다 무신론을 고집하는 것이 더 어렵겠구나.”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리스트로 벨이 겪은 실화를 그렸다. 리스트로 벨은 냉소적인 무신론자였다. 그는 저명한 신문사에서 13년 동안 활동한 베테랑 법률담당 기자이다. 의심하고, 증거를 찾고, 변증하는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다. 증거와 사실을 중요시하는 그에게 종교는 허구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가족들과 즐겁게 외식을 하고 있는데 딸이 갑작스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 때 한 크리스천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리스트로 벨의 아내 ‘레슬리’가 중대발표를 한다.

“나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심했어.”

종교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리스트로 벨은 법률적 지식과 기자 경력을 살려 예수를 취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4대 복음서는 믿을 만한가?’,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역사적 예수와 성경적 예수는 다르다’ 등 기독교 신앙을 무너트릴 수 있는 단순하고 거친 질문들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 13명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Q: 예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진실인가.

A: 부활을 증거하는 기록물에 따르면 십자가 사건은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 흐른 뒤가 아니라 부활 이후 몇 달 내 증언들이다. 무려 500명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다.

Q: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

A: 군인들이 예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나온 심낭삼출(피와 물 같은 액체)은 절대 속일 수 없는 사망의 결과라고 확신한다.

수많은 의심과 증거가 오가는 설전 끝에 리스트로 벨은 예수가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영화 ‘예수는 역사다’의 실제 주인공이자 원작 〈예수는 역사다〉의 저자 리스트로 벨은 무신론자에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다. 그는 현재 텍사스의 우들랜즈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고 동시에 휴스턴 뱀티스트 대학에서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영화 ‘예수는 역사다’에는 흥해를 가르는 모세, 피 흘리는 예수, 눈물 나는 삶을 산 선교사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떤 기독교 영화보다 박진감 넘치게 예수를 증거 한다. 성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비신자들이 봐도 좋을 영화다. 작품성 또한 이미 검증됐다. 미국 박스오피스 9위를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냈고, 원작 〈예수는 역사다〉는 1,400만 부가 팔리며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증거를 내 놓으라”는 비신자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거나 예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꼭 봐야 할 영화다.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다. 벌써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응원이 될 것이고, 비신자들에게는 반박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도가 될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눈빛이 강렬하거나 언행이 다소 거칠고 독특하면 우리는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카리스마라는 말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지도자(Leader)를 구분할 때 ‘전통적 지도자’, ‘합법적 지도자’와 더불어 ‘카리스마적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보편화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유래는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그 의미는 무대를 휘어잡는 연예인의 강렬한 눈빛이나 표정, 말투와는 전혀 상관 없어요.

카리스마는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재능, ‘은사(恩賜)’를 의미해요. 성경 중의 성경, 복음의 심장이라고 일컫는 로마서에 카리스마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글인데,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필요와 방법, 확신을 매우 생생하고 정확하며, 견고하게 해주는 위대한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위대한 책은 카리스마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첫째, 카리스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카리스마)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

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롬 5:15).

카리스마가 선물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카리스마)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내려주신 영생의 선물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카리스마=거저 주신 선물)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롬 6:23).

둘째, 카리스마는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카리스마)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아요(고전 12:4). 성령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여러 모양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거예요(고전 12:7).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양한 종류의 영적 은사(카리스마)를 주셨는데 각 사람에 따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도 무상으로 주시는 영생의 카리스마처럼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

사랑의 카리스마, 영생의 카리스마

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간혹 성령님이 주신 은사의 본질을 오해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은사의 주체를 망각한 사람들은 발휘된 은사가 자신의 능력인줄 착각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해버렸던 것이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능력을 결코 자랑하거나 영광을 취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평생 앓았던 질병을 통해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신비한 은사들보다 더 위대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고전 12:31).

바울이 소개하려는 그 카리스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가수 윤희주 장로님이 속했었던 ‘췌시봉’이라는 그룹이 불러서 큰 인기를 얻었던 ‘사랑은 언제나’라는 노래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 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 나는 췌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고전 13:1~3).

방언, 통역, 치유, 지식, 희생, 예언과 지혜,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 등 모든 기막힌 신비의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방언 카리스마를 받으려고 기도원 소나무를 뽑으러 다니고, 병 고치는 카리스마를 받으려고 치유집회 찾아다니며, 영적 능력의 카리스마를 소유하려고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의 카리스마’를 사모하고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 카리스마는 영생의 카리스마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영적 카리스마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는 없겠네요. 우리의 성격이나 외모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면 카리스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장착해야 할 필수 아이템이에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485명 열방으로!

5개 학교 15개국 29개 지역으로 아웃리치팀 파송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 School)가 상반기 훈련을 마치고 여름 아웃리치팀 파송이 한창이다. 지난 7월 1일 양재 주간반 일본, 몽골,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아웃리치팀을 시작으로 8월 13일 수원 저녁반 스리랑카팀까지 아웃리치가 이어진다.

올해 JDS는 5개 학교(서빙고 주간·저녁, 양재 주간·저녁, 수원 저녁) 485명이 15개국 29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이

다. 러브소나타 10주년을 맞아 JDS 간사 159명이 동경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그 외에도 국내, 중국, 몽골,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로도 아웃리치를 간다.

지역도 풍성하다. 난타공연, 공휴사역, 한국요리강습, 농장사역, 청년운동회, 학교 수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JDS 2017 여름 아웃리치 일정〉

서빙고 주간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남아시아 1국	김영옥	7월 5일~12일	난타공연
스리랑카	고정희	7월 6일~13일	공휴사역(교아와과부)
남아시아 F국	박은신	7월 5일~13일	소수민족처소방문, 어린이사역, 도시정탐
동아시아 A국	박희경	7월 5일~13일	교회방문, 한국요리강습, 땅밭기
남아시아 H국	조 숙	7월 7일~16일	원주민마을사역, 여성선교사성경사역

서빙고 저녁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남아시아 B국	김승한	7월 23일~30일	농장사역
남아시아 E국	오선희	7월 29일~8월 6일	장애인, 어린이사역
남아시아 F국	유연상	7월 22일~30일	어린이사역, 교아원
중앙아시아 A국	이종선	7월 29일~8월 5일	청년운동회, 땅밭기
남아시아 H국	이희정	7월 16일~24일	어린이사역, 전도
남아시아 I국	정철용	7월 17일~24일	학교수리, 교아원사역
동아시아 B국	이명희	7월 28일~8월 4일	문화행사, 땅밭기
남아시아 J국	오경희	7월 17일~24일	대학전도사역, 문화캠프

수원 저녁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스리랑카	이재훈	8월 5일~13일	홍차따기
남아시아 H국	이옥경	7월 28일~8월 6일	어린이사역, 중보, 땅밭기
남아시아 G국	박명수	7월 17일~24일	무슬림지역(2개 마을 방문, 무슬림친구 초대)
동아시아 A국	한소옥	7월 15일~23일	여성성경학교, 목회자캠프
남아시아 N국	원태희	7월 24일~30일	선교센터 부엌 공사

양재 주간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일본	홍영옥	7월 1일~9일	노방전도, 순례지방문, 민화성경공부
남아시아 D국	고선미	7월 7일~15일	어린이 청소년 사역, 개척선교교육
남아시아 B국	이형순	7월 10일~18일	농장 율타리사역, 문화탐방
동아시아 A국	신선호	7월 1일~10일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진료
스리랑카	이수정	7월 1일~9일	전도, 부모교육, 손씻기
중앙아시아 E국	김성현	7월 1일~8일	여성사역, 현지인 집 방문 등
남아시아 N국	박현희	7월 1일~10일	어린이 사역, 전도 사역
대한민국	성정희	7월 11일~17일	해병대 간식제공, 거리전도

양재 저녁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남아시아 N국	정수년	7월 22일~31일	여름 성경학교
남아시아 H국	김종희	7월 15일~23일	어린이와 여성 성경학교
남아시아 B국	원종화	7월 13일~22일	문화 사역
대한민국	안정민	미정	미정
동아시아 A국	윤호일	7월 22일~31일	교도소 사역, 아버지 학교
동아시아 A국	이정보	7월 2일~10일	연합 수련회
남아시아 I국	허대행	7월 22일~30일	어린이와 청소년 한글 학교

JDS 간사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일본	유영수	7월 26일~30일	러브소나타



NGO 더멋진세상이 세운 아펠타바 마을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NGO 더멋진세상, 필리핀에 기숙사 완공

마을 진입로, 농업사업, 학교 교실도 증축 예정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7월 필리핀 아펠타바 마을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완공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필리핀 아펠타바 마을은 차량조차 접근 할 수 없는 오지다.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은 아랫마을 티비아오에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다. 기숙사가 생기기 전까지 집집마다 돈을 모아 낡은 다락방을 빌려 단체생활을 했다. 중고등학생들이 단체생활을 하던 건물은 돼지 축사가 연결되어 있어서 돼지 울음소리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번에 NGO더멋진세상이 아펠타바 마을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완공하면서 28명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숙식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기숙사는 지상 2층 건물이다. 자습실, 수도, 전기,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 교회 목사가 기숙사 사감을 맡아 매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요일 저녁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다.

티비아오 고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느라 자주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았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 김영선 기자



온사랑합창단과 주사랑찬양사역팀이 함께 합창하고 있다.

‘받는 사랑 보내는 사랑’

온사랑합창단, 주사랑찬양사역팀 후원콘서트

지난 8일(토) 온사랑합창단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주사랑찬양사역팀 후원콘서트 ‘받는 사랑 보내는 사랑’을 개최했다. 이날 온사랑합창단은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대상받은 곡과 작년 우수상 받은 곡을 합창했다. 이외에도 김보라 단원과 윤혜선 교사의 듀엣, 온사랑 남성중창, Con moto 앙상블, 황후령 교사 솔로, 주사랑찬양사역팀의 공연이 이어졌다. 피날레는 온사랑합창단과 주사랑찬양사역팀의 합동 무대로 장식했다.

신준환 지휘자(서빙고 주찬양사역팀)는 “온사랑합창단과 주사랑찬

양사역팀의 이름처럼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사랑이 되살아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고, 강은선 성도(인천 사랑의교회)는 “그동안 사랑을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콘서트는 온사랑합창단이 지난 6년 동안 받은 사랑을 일본 선교에 흘려보내고자 기획했다. 이날 콘서트 수익금은 동경으로 아웃리치를 가는 주사랑찬양사역팀에 전액 기부했다. 온사랑합창단 단원 세 명도 주사랑찬양사역팀과 함께 동경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53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8월 18~20일 진행

내면의 상처와 쓴 뿌리 치유를 돕는 53기 내적치유학교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파주 제2수양관에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회복사역이다. 53기 내적치유학교에서는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이 내면 깊은 곳의 상처와 수치심 등을 회복시키고, 예수님과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 준다. 회비는 15만원.

문의 010-5543-8002

2017년 4차 선교사 파송

바이블네임	지역
김예복, 김사라	온누리M센터
요한, 박보빈	동아시아A국
데이비드, 에스더	온누리M센터
사라	온누리M센터
캐시	온누리M센터
아디나	온누리M센터
박성실, 양기쁨	남아시아N국
김은총	남아시아H국
채을	중동Q국
김소향	중동E국

144기 아버지학교 수강생 모집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144기 아버지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원.

아버지학교는 1995년에 창설됐다. 지금까지 군인,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남성들에게 올바른 아버지상을 심어주고 그들이 올바른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주고 있다.

문의: 010-4215-5837

대전 이혼자행복학교 모집

대전 온누리교회 이혼자행복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혼자행복학교는 이혼위기거나 별거중인 성도, 이혼을 경험한 남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아상 회복’, ‘뚝다 한 우리들의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10-2539-5665



동경 기·도·제·목

- 7월 17일(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러브소나타 행사가 되도록
- 7월 18일(화) 이재훈 목사님과 모든 강사, 출연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 7월 19일(수)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 7월 20일(목) 참가자, 아웃리치 하는 성도들이 물 떠온 하인의 감격을 경험하길
- 7월 21일(금) 낚시, 교통, 안전, 건강, 음식,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 7월 22일(토) 일본 목사님들, 성도들, 실행위원들이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기를
- 7월 23일(주일) 러브소나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신앙에세이

권사칼럼

열심히, 전심으로, 진심으로

최성민 목사
(대학부 담당)

많은 대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 너무 좋은 곳만 가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곳이 아닌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고 말한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학이 미래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여긴다면 마음가짐이 바뀔 것이다.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자존감이 낮으면 높은 스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바쁜 만큼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친구들의 특징이 있다.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은 나의 시간을 드리라고 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인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둘째,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바꿔야 한다.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롤러코스터의 안전바와 같다. 롤러코스터를 바라보면 두렵지만 안전바가 안전하게 잡아줄 것이라고 믿으면 기대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느냐 기대감으로 바라보느냐다. 결국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 태도부터가 다르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많은 대학생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닥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시선을 일지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룩함에 맞추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모든 대학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살고, 전심으로 살고,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사랑을 받는 곳보다 사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요 선교지가 되는 것이다. 선교지야말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 주제가 ‘열방을 기뻐하라’ 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바란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히 기쁜 사람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에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많다. 대학청년부 멘토님들이 그렇다. 멘토님들을 보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주어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

송보성 권사
(성동광진공동체)

“저 사람은 한 날 목수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막 6:3).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막 6:6). 우리에게 있는 상식과 경험이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구절이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세상에서 들리는 말을 듣고 너무 쉽게 행동하고 판단한다. 예수님은 천덕꾸러기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고,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사형수에게도 천국에 간다 하셨고, 금기시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며 식량을 대신 할 정도로 기뻐하셨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고 비난하셨다.

어느덧 나의 신앙도 기력이 쇠하였다. 지속적으로 거듭나고 갈고 닦아야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이 희미해진 것 같다. 일상을 따라 가는 권태를 느낀다. 이러한 일상에서 불협화음이 오는 때가 있다. 그럼에도 이것을 기회로 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니”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묵상하면서 내안에 있던 편견과 선입관이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천한 낮은 자 속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니었을까?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는 그 무리를 이루는 정해진 흐름에 에너지를 쏟게 된다. 성령의 흐름이 주류에서 벗어날 때도 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이다’

라는 찬양이 떠오른다. 무리로부터 떨어져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이 속해있던 무리에서 떨어져야 했던 모세도 묵상하게 된다. 어쩌면 그는 파라오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을 깨달았기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내가 있는 광야에서 무엇을 할까? 매주 무릎기도에 서 기도하면서 알게 된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은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나는 그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자연히 자기소개서 작성과 입시와 진로상담을 하게 된다. 나의 사회 경험이 조금이라도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에 비하면 지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을 느끼게 된다. 많이 가짐이 우리의 영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도 봉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어 감사하다. 여기서 더 발전하여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들과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도움이 오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제 내 주변의 사사로운 일상의 사건들로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 내가 필요한 곳, 나의 나뭇을 주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일 것인가? 이제 권사로서의 나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낮은 곳, 조금 더 작은 자에게로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편견과 상식을 뚫고서 진정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주는 질서에 순종하며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

장로칼럼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교회

“전도사님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권사님 허리 아프신 것 좋아지셨나요?”
“순장님 이번 주 순예배는 어디서 모이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환하게 인사하고 웃음으로 화답하는 양지 온누리교회 주일 아침 풍경이다. 양지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은 2년 전 수련회에서 예절전문가 강사님을 모시고 인사를 공손히 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 만나면 반갑게 먼저 웃으면서 인사 합시다’ 캠페인을 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달라졌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일을 맞이하던 성도들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었다. 대표기도 하러 오신 장로님들도 서빙고 온누리교회 초창기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며 좋아하신다. Acts 29 비전빌리지에서 훈련 받고 선교지 갔다 잠시 들린 선교사님들도 교회가 성도 수도 늘고 활기차졌다고 놀라신다.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도 교회 분위

기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계속 나오고 싶다고들 하신다.

서빙고와 양재 같이 성도 수가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잘 모를 수 있지만 ‘1캠퍼스 1 공동체’인 양지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든 성도들의 얼굴도 익히고 사정도 알 수 있다. 편하고 자유스러운 것이 양지 온누리교회만의 특권인 것 같아 참 감사하다.

성도님들이 텃밭에서 심고 가꾼 채소와 집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헌물도 한다. 성도님들이 자비량으로 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재작년부터 근처 미자립교회와 아웃리치로 연결된 교회를 보수해주고 필요한 물품도 보내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 같이 작은 캠퍼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도 쓰임 받아 연약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저절로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 되는 것을 보면서

담당목사님께서 목회의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 옆에서 보는 나도 흐뭇하다.

양지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은 시대의 흐름이고 대형 교회의 약점인 무관심과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안식과 따뜻한 힘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교통 문제, 차세대 교사 부족, 강사 부족 등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지 온누리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접목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함께 이루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한다.

우리 집 마당에 손자와 함께 심은 해바라기가 꽃을 활짝 피었다. 해바라기 꽃은 해를 따라 피어서 해바라기인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꽃이 어떤 것은 북쪽을 향하고 있고 어떤 것은 서쪽을 향하고 있다. 해바라기 꽃도 지 맘대로

피는구나 싶어 이름을 지바라기로 바꿔 줘야 하나 생각했다. 해바라기를 보면서 나의 믿음도 저러지 않나 싶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행한 공로를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다. 나의 바람과 추구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래도 멋있게 보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포장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봤다. 양지 온누리교회가 많은 이들이 모이고 많은 사역을 이루기보다는 적은 숫자라도 참 예배자들이 예배드리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 한다.

안태환 장로
(양지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놓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구원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 죽어가는 생명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율법적인 조항을 제안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활력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회복시켜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순종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활력을 베풀어주시니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네 가지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타락 이전 인간은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둘째, 인간이 범죄 한 이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넷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세 번째 단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 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와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15-20절).

하나님의 언행에 순종하는 것은 엑세서리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

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내려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과 마음 가까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 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여자 분이 자살로 생명을 마감하려는 시점에 이를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시도로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읽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 그녀의 손가락에 짚혀 있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짚어서 읽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극한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고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택해보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조경(造景)가

세상에는 참 많은 분야의 일과 직업이 있다.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고, 물건을 판매하고,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내고, 하천을 정비하고, 교량을 만드는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유지된다.

내 직업은 조경가다. 조경(造景)은 지을 조(造), 경치 경(景)이라는 글자를 쓴다. 문자 그대로 경관을 만드는 분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경을 나무를 심고 잔디를 조성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대부분이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의 조경은 나무 심어 주는 일이었다.

근자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다. 예전의 아파트 단지는 건물만 들어서있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의 아파트들은 마치 공원처럼 되어 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물놀이 시설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마치 작은 레저타운이나 작은 숲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조경을 떠올린다. 어떤 사람들은 공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

하기도 한다.

우리는 ‘정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주택이건 공원이건 간에 조그마한 땅만 있으면 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조성한다. 그리고 그곳을 힐링 장소로 사용한다. 그 때문인지 현재의 조경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의 변화는 있지만 나무를 심는 것, 아파트 단지의 조경을 만드는 것, 공원을 조성하는 것, 정원을 만드는 것 모두를 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소, 이용 성격으로 분류해 보자면 도시적 공간(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숲과 같은 공원·체육공원·정원·광장 등), 자연적 공간(국도립공원, 자연휴양림, 삼립육장, 수목원, 식물원, 둘레길 등), 레저 공간(테마파크, 관광지, 유원지, 골프스키리조트 등), 건축 공간(옥상, 실내, 건물 주변의 쉼터 조경 등), 생태적·하천 공간(하천 주변 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생태육교 등), 문화재 공간(경복궁과 창경궁 등 궁·원의 조경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경 등) 등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간 조성을 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광의적인 장소 조성을 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조경을 조성할 때는 이용자의 생각과 행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일 경우 아이들의 심리와 행태를, 자연휴양림과 삼립육장은 이용자의 필요와 자연의 조화를, 생태공원 조성은 주변 서식지의 동물 생태환경을 고려한 조성이 필요하다. 대상지역의 기후와 환경도 필수 고려 대상이다. 겨울이 긴 러시아와 사계절이 있는 한국과 열대기후의 태국은 자라는 수목과 생태적 특성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경은 기능적, 공학적, 생태적, 심리적인 것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디자인을 설계하여 조성하는 종합 분야이다. 이런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그려본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 2:8).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조경가이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조성한 기초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기 때문이다. 도심 속에 숲과 시내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열매와 단풍을 감상하게 하고, 가족과 연인이 편안한 쉼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조경가이다. 아마도 조경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진 직업이 아닐까 싶다.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의 연합된 모습으로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에덴동산은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에덴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조경가이시다.



홍갑진 집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창대JnC 대표)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전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 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첫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CMN 라파팀 아웃리치 모집

일정: 7월 30일 안산M센터

지역: 예배, 전도지 배포 및 의료사역

모집: 의료인, 이마용, 일반 성도

문의: 심형섭(010-3227-9915)

아랍예배 예배팀 모집

시간: 매 주 주일 오후 1:30~4:00

장소: 분관 B102호(매월 첫 주 선교관 402호)

분야: 간반, 퍼커션 등

문의: 박미애 전도사(010-3259-3561)

두란노서원 출판부 채용 공고

모집: 출판 편집자(1명)

경력: 경력 1년 이상

마감: 7월 24일(월)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이란어예배 봉사자 모집

시간: 매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장소: 분관 5층 다락방 모집: 2명

문의: 박씨매 전도사(010-8505-0191)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서빙고 커피숍 직원, 서빙고 양식당

조리원, 서빙고/양재 한식당 조리원, 양지

기관시설 직원, 양지 보안관리 직원(1년 기

간계약직)

자격: 세례교인 경력무관(동종업계경력자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bible81@onnuri.org

문의: 총무팀(02-3215-3102)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등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궁촌리 산 152-2

이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문의: 02-3215-3178-9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 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 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 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

임 살롱기도회

일시: 매 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 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양재 분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호수요양병원 4층

양재 농어촌 재능기부팀 차량 기부 요청

목적: 농어촌 미자립교회 보수공사

내용: 1톤 화물차

문의: 김관근 장로(010-5515-7081)

공사랑 축구선교팀 회원모집

비전: 축구를 통한 선교

대상: 온누리교인 혹은 주변, 믿지 않

는 남편, 아들, 지인

운동시간: 매 주 토 13시~15시

장소: 연남고등학교 잔디 구장

<



KNOCK 미니휴먼다큐



현묵이의 미니멀라이프



수요일 밤마다 의정부역을 찾아오는
‘천사’가 있다?!

아르바이트비의 절반을 뚝 떼어
거리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27세 청년 윤현묵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대신 끌고,
쓰레기 더미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지 730일.
‘엄니’들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도 마다 않는
평범한 청년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월 16일 바로 오늘!
CGNTV 노크 페이스북에서 만나보세요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